


|  |       |  |                         |  |                        |
|--|-------|--|-------------------------|--|------------------------|
| <br>인천광역시 |       | 보도자료   |                         | 시민이 <b>행복</b> 한<br>세계 <b>초일류</b> 도시 인천                             |                        |
|  |       |  |                         |  |                        |
| 담당<br>부서   | 녹지정책과 | 배포일자   | 2023년 9월 19일(화)<br>총 2매 |  |                        |
|  |       | 담당자  | • 녹지정책팀장<br>• 담당자       | 황현목<br>김은정   | ☎440-3691<br>☎440-3692 |
| 사진(이미지)  |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보도시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인천시, 1만2천주 은행나무 열매 미리 채취해 악취 막는다

- 시,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민원 기동대응반 운영 -
- 오염도 측정 후 안전한 채취 열매는 시민 체험프로그램에 활용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 민원 기동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은행나무 열매는 녹음과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노란색 가을 단풍이 아름답지만 떨어진 열매는 악취가 심하고 도로변에 얼룩을 남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을철 불청객이다.

기동대응반은 인천시가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군·구에서는 진동 수확기, 열매 수거망, 고소작업차 등을 활용해 은행나무 가로수 12,764주의 열매를 조기 채취한다. 이미 떨어진 열매는 즉시 청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은행나무 열매의 중금속, 잔류

농약 등 오염도 측정을 의뢰해 안전성이 확인된 열매는 공원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예정이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가을철 은행열매 낙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열매를 채취하기로 했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과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인천시 가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동수확기를 이용한 은행열매 채취



중구 연안부두로 열매수거망 설치